

유니폼 사고 팬미팅하고 … 광주FC, 축구 열기 일상으로

대의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내일부터 매주 수~일요일 운영
MD상품 전시·판매, 카페 운영…31일까지 SNS 방문·구매 이벤트

광주FC가 '축구열기'를 문화로 이어간다. 광주FC가 15일 동구 대의동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개관식을 통해 스토어의 시작을 알린 광주는 17일부터 상설 운영에 들어갔다.

스토어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유니폼·MD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스토어는 카페와 결합한 복합형 구조다.

스토어는 최신 감성에 맞춰 빈티지 콘셉트로 꾸려졌으며 선수단 팬미팅 등 팬 서비스 행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정호 감독을 앞세워 광주에 축구 바람을 만든 광주FC는 팬들은 물론 시민들과 동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광주월드컵경기장 인근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동명동 상권과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이에 공간을 마련했다.

'홍보대사'인 노라조 조빈도 광주로 걸음을 해 광주FC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탰다.

조빈은 "광주FC가 MD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갖췄는데 팬들이 가장 원했던 오프라인 매장까지 문을 열게 됐다. 도심에 생기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호기심에 들어오셨다가 광주FC를 알아가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 될 것 같다"며 "광주FC가 조금 더 멋있고 세련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또 광주FC가 축구만 하는 구단이 아니라 문화도 만들어내는 구단이 됐다"고 스토어 개관을 반겼다.

이어 "나중에 조그만 버스킹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이곳에서 공연 한번 하고 싶다. 꼭하겠다"고 광주 시민들과의 만남도 약속했다.

광주FC는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했다.

광주FC는 31일까지 SNS 방문·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음료 구포이나 이월 MD상품을 선물할 계획이다. 개관에 맞춰 구단 의류도 할인 판매한다.

홍보대사 조빈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광주FC는 조빈이 선정한 스토어 내 3개 지정 스팟을 인증하는 '조빈(PICK) 스팟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에게 유니폼과 친필 사인, 백구 등을



광주FC 홍보대사 조빈이 15일 광주 동구 대의동에서 진행된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선물한다.

노동대 대표이사는 "광주FC 플래그십 스토어는 팬들이 일상에서 구단을 경험하는 새로운

거점이다. 더 많은 팬이 방문해 광주만의 축구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럽리그에서 활약했던 손흥민의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MLS) LAFC 이적이 올해 국내 스포츠 최고 뉴스로 선정됐다.

'손흥민 MLS 이적' 올 최고 스포츠 뉴스

체육기자 설문…프로야구 흥행·월드컵 11회 연속 본선 진출 순

축구 국가대표 간판 손흥민(LAFC)이 유럽에서 첫 우승을 달성하고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로 이적한 것이 올해 국내 스포츠 최고 뉴스로 선정됐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원사 35개 사를 대상(34개 사 응답)으로 3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올해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설문 조사에서 '손흥민, 유럽서 15년 만에 첫 우승 후 미국으로 전격 이적' 항목이 276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했다.

설문 조사는 보기로 제시된 26개 국내 스포츠 뉴스 항목에 1~10위 순위를 매겨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위표는 10점, 2위 9점, 3위 8점 순으로 10위 1점까지 점수를 더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항목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올해 5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토넘 속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손흥민은 201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데뷔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후 8월 MLS 로스앤젤레스(LA)FC로 전격

이적하며 '축구 인생 제2막'을 시작했다.

2위는 '프로야구, 국내 스포츠 최초 2년 연속 1000만관중 흥행 폭발'이 250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1000만명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올해 1200만 시대를 열어 끝이 보이지 않는 인기를 재확인했다.

프로야구 관련 뉴스는 2년 연속 1000만관중 외에 'LG, 2년 만에 통합 우승 삼포인'이 4위(202점), 'NC파크 구조물 추락해 관중 사망…야구장 안전 불감증 도마 위에'가 7위(119점), '투수 4관왕 폴세, 19년 만의 한화 출신 MVP'가 9위(83점)를 차지해 10대 뉴스 절반에 가까운 4개 항목을 순위에 올렸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뉴스가 3위(233점)에 올랐고, 우승 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 5위로 평가됐다.

또 안세영을 앞세운 한국 배드민턴의 황금기 구가 소식이 6위(147점), '배구 여제' 김연경이 우승하며 은퇴한 장면이 8위(116점)에 랭크됐다.

10위는 4년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한 전북과 9위로 추락한 '디펜딩 챔피언' 울산(76점) 등 K리그 소식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헹크' 오현규, 극장골로 시즌 10호골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벨기에 프로축구 KRC 헹크에서 활약하는 국가 대표 공격수 오현규(24·사진)가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동점 골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하고 유럽 무대에서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도 달성했다.

오현규는 15일 벨기에 헹크의 세계카 아레나에서 KVC 베스테를로와 치른 2025-2026 벨기에 주필리리그 18리운드 홈 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49분 동점골을 터트렸다.

헹크는 전반 13분 그리핀 요우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 패색이 짙었으나 오현규의 극적인 득점으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오현규는 교체 선수 명단에 포함돼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전반에 선제골을 내준 헹크는 이후 로빈 미리솔라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등 불운마저 겹쳤다.

후반 들어서도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헹크는 후반 20분 공격형 미드필더 단 하이만스를 빼고 오현규를 투입했다.

헹크는 후반 27분 상대 수비수 에민 바이람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뒤로 더욱 공세를 펼쳤고, 마침내 오현규가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추가시간 오른쪽 측면에서 낮게 올라온 크로스가 수비수를 맞고 흐르자 오현규가 오른발로 차惘였다.

오현규에게는 올 시즌 리그 17경기에서 넓은 6호골(2도움)이자 공식전 10호 골이었다.

오현규는 이번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 4골(예선 2경기 1골, 본선 6경기 3골)을 터트렸다.

이날 득점으로는 오현규는 텔릭(스코틀랜드)에서 헹크로 이적한 지난 시즌 리그 27경기 7골(2도움)을 포함해 공식전 41경기에서 12골(3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유럽에서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연합뉴스



KIA, 3년째 '무등산 보호' 앞장

선수 기록 연계 적립…보호기금 616만원 전달



KIA 김도영(왼쪽)과 윤영철(오른쪽)이 15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를 찾아 보호기금을 전달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가 무등산 보호기금 616만원을 전달했다.

KIA는 15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윤영철과 김도영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지난 2023년 '무등산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KIA는 3년째 보호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기금은 선수단의 기록과 연계해 적립됐으며, 선수가 직접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에 참가한 윤영철과 김도영은 "매해 연고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데 선수단이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다. 팬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지정 스포츠 신규 클럽 올해 15개로 전국 최다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정스포츠 클럽 신규·갱신 선정'에서 전남 지역 15개 스포츠 클럽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규 지정 클럽은 순천유도스포츠클럽, 보성공스포츠클럽, 무안공공스포츠클럽, 장성야구스포츠클럽, 함평나비유소년스포츠클럽, 강진에이스테니스 등이다.

갱신 지정 클럽은 순천스포츠클럽, 여수공공스포츠클럽, 나주시스포츠클럽, 구례노고단스포츠클럽, 강진스포츠클럽,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영광스포츠클럽이다.

장흥중합형스포츠클럽, 완도장보고스포츠클럽은 예비 지정 클럽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클럽이 선정됐으며, 특히 신규 지정 클럽에 빨간·육성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스포츠클럽 육성 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주기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